

사계절영양관리와 한식영양관리로 당신을 코디네이션!  
**임핑다아너스티 컨트리 클럽**  
 ● 우천시 9시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 2008 광주·전남 체육계 결산

(1) 베이징서 빛난 별들



## 올 여름 그대들 있어 시원했다

2008년 광주·전남 스포츠는 명암이 엇갈렸다. 지역 출신 스타선수들은 한여름을 뜨겁게 달군 베이징 올림픽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한국의 상위 입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KIA 타이거즈와 전남드래곤즈 등 프로 스포츠는 부진을 면치 못해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 금 4개·동 2개 획득...한국 7위 견인 2012년 대회 향한 '태극호' 주축 기대

지난 8월 8일부터 24일까지 열린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 13개, 은 10개, 동메달 8개를 획득, 종합순위 7위를 차지하며 개최국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한국의 선전에는 광주·전남 출신 선수의 뛰어난 활약이 큰 몫을 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지역선수는 모두 36명. 이들은 야구를 포함 4개의 금메달과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또한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한기주(이상 투수)와 이용규(외야수)는 야구 은메달 사상 처음 우승을 차지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광주·전남 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금빛 소식을 전한 선수는 곡성 출신 여자 양궁 대표 주현정(26). 광주체고를 졸업한 '꽃짜이국가대표' 주현정은 여자 양궁 단체전 올림픽 6연패를 증명시켰다.

주현정은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8년만에 통과했고, 실업 생활 8년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늦깎이 국가대표팀 합류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땀을 흘렸고, 당당히 그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주현정은 이제 그동안 꿈으로 간직해왔던 대학진학의 꿈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꽃짜이' 이용대(20·화순실고 졸업)는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특히 우승 후 화순에 사는 어머니에게 '금메달 링크'를 날려 베이징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며 일약 '국민 남동생'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화순실고 시절부터 박주봉의 뒤를 이을 기대주로 각광받으며 각종 국내외 대회를 석권해 왔던 이용대는 어린나이에 도전한 경기 진행과 타고 난 감각으로 한국 배드민턴을 이끌 세계적 스타로 각광받고 있다.

광주 송일고 출신 윤재영(25)은 유승민, 오상은과 함께 남자 탁구 단체전에 출전한 동메달을 따냈다. 차동민(22·한체대)은 문대성의 뒤를 이어 '태권도의 꽃'으로 일컫는 남자태권도 최중량급(80kg이상)의 금메달 신화를 이어갔다. 당초 차동민은 올림픽 출전부터 '행운'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 선수중에서 금메달 획득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트리면서 태권도에서 4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금메달 같은 동메달'로 평가받는 '우승선'(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신화를 이어갈 선두 주자 무안 출신 여자 핸드볼 김은아(20·백산건설)는 오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했다. '88동아' 김은아는 조별리그 첫 경기 러시아전에서 후반 7골을 퍼부으며 극적인 무승부를 이끌었다. 무안 백제고 출신인 김은아는 고교 시절 회장기, 문화부장관기, 전국체육대회 등 3관왕을 이끌며 고교랭킹 1위로 실업팀에 입단했다. 또 주니어, 청소년 세계무대에서 득점왕과 최우수선수상을 휩쓸면서 한국 여자 핸드볼 대들보로 자리매김했다. 1대1 풀과 페인팅 동작에 이은 슛과 같은 작은 기술이 세계적인 김은아는 중거리 슛 같은 큰 기술을 보완해 런던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겠다는 각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제는 세계 정상을 향해서

### 맨유 박지성 FIFA클럽월드컵 4강전 명단 올라 18일 오후 7시30분 일본서 감바와 결승행 다뤄

잉글랜드와 유럽에서 우승을 맞은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사진)이 이번에는 세계 정상에 도전한다. 맨유는 18일 오후 7시30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2008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4강전에서 일본 J-리그의 감바 오사카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맨유는 예선없이 준결승부터 대회에 출전한다.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감바는 14일 8강전에서 후주의 에틀레이드FC를 1-0

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맨유 원정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지성도 일본행에 합류했다. 맨유 입단 이후 프리미어리그에 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을 맞은 박지성은 클럽월드컵까지 정상에 올라 세계 제패를 꿈꾸고 있다. 일본은 박지성이 프로에 데뷔한 곳이어서 친숙하다. 명지대 1학년이던 2000년 박지성은 일본 2부리그인 교토 퍼플상가에 진출하며 프로 선수가 됐으며 2002년에는 퍼플상가 1부리그에 올려놓은 뒤 유럽으로 진출했다. 소속 리그에서 절정에 오른 경기력을 축구 인생에 있어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마음껏 펼쳐보일 기회다. FIFA는 2000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초대 클럽월드컵을 열었고, 4년을 쉬다가 2005년 일본에서 두번째 대회를 치른 이후 매년 일본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럽 빅리그 팀들은 이 대회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최근 2년 사이 대회 위상은 급격히 높아졌다. FIFA가 상금을 대폭 올리면서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대회가 됐기 때문이다. FIFA는 우승팀에 500만 달러를 주며 꼴찌인 7위를 해도 50만 달러를 지급한다. 총상금은 1천600만 달러나 된다. 맨유가 박지성을 비롯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웨인 루니,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카를로스 테베스, 라이언 깁스, 에드윈 판데사르 등 최정예 멤버로 23명의 원정부대를 꾸린 것은 바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유는 준결승에서 감바를 누르면 21일 같은 장소에서 결승을 치른다. 에콰도르의 LDU키토와 멕시코의 파추카의 또 다른 준결승 승자가 결승전 상대가 된다. /연합뉴스

### 허승표 축구연구소장,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허승표(62) 한국축구연구소 이사장이 11년 만에 대한축구협회 수장에 다시 도전한다. 허승표 이사장은 15일 경력과 비전 등을 담은 A4용지 16쪽 분량의 '한국축구, 변화와 도약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선거 캠페인을 언론사와 축구계 인사들에게 배포했다. 내년 1월 중순 축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제51대 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 1993년부터 협회를 16년간 이끌어왔던 정몽준 회장의 후임을 뽑는 축구협회장 선거는 허승표 이사장과 조종연(62) 협회 부회장, 최근 경기도 축구협회장 3선에 성공한 민주당의 강성종(42) 의원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 조종연 부회장은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강성종 의원은 입후보 의지를 굳히고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보성고, 연세대, 신학은행에서 선수로 활약했던 허 이사장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어리그 아스널에서 지도자 연수를 하고 국내 최초로 잉글랜드축구협회 코치 자격증을 받았다. 허 이사장은 지난 1997년 제48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섰다 25표 중 22표를 얻은 정몽준 회장에게 완패했다. 이후 2004년부터 축구연구소를 이끌며 서적 발간과 연구 활동을 지원해왔고 '정몽준 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며 협회장에 재도전하게 됐다. 한편 내년 총회에서 회장 투표권을 행사할 전체 대의원 28명(16개 시도 회장, 7개 연맹 회장, 중앙대의원 5명) 가운데 6개 연맹과 9개 시도 회장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 삼성 김응룡 사장 사의 표명

### "소속 선수들 인터넷 도박 관련 도의적 책임"

김재하 단장도 함께  
소속 선수들의 인터넷 도박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김응룡 사장과 김재하 단장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15일 "사표는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영진이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수사가 끝나면 누군가는 이번 사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경영진이 사의를 표명하고 인사권자에게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응룡 삼성 사장은 해태-삼성 감독을 역임하며 한국시리즈 10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고 나서 2005년 한국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경기인 출신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다. 창단 멤버인 김재하 단장은 1999년부터 삼성 단장을 지내며 세 차례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김 단장은 "도박 사건에 우리 팀 소속 선수가 많이 연루돼 곤혹스럽다. 경영진뿐 아니라 나, 선동열 감독 등 코치진과 선수단 모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나 구단 최고 경영진으로서 야구팬에게 물의를 일으킨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에 사건이 매듭지어지면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 대한체육회 "KOC와 완전 통합"

이사회서 결의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분리 반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체육회는 1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행 대한체육회 특별위원회로 규정된 KOC의 법인격 미비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올림픽체육회'로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조만간 대의원총회

를 소집해 KOC와 완전 통합을 최종 결정하고 조직 정비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체육회와 KOC의 완전 통합 방안은 정부가 추진중인 체육단체 구조조정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돼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OC의 위상 강화를 위해 체육회에서 분리시켜 새로운 법인으로 출범시키고 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연합뉴스

## KIA 오늘 납회식

KIA 타이거즈가 16일 납회식을 갖고 2008시즌을 마무리한다. KIA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신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구단 임직원과 선수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납회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대표이사 인사말과 감사패 전달식에 이어 구단 자체에서 선정하는 수훈 선수 및 코치·선수·직원에게 대한 공로상 시상도 진행된다. 이밖에도 광주·전남 사민기자회가 선정한 '올해의 포토제너시스' 시상식과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얼음 황제' 표도르 21일 방한

'얼음 황제' 표도르 에벨리아넨코(32·러시아)의 무패 신화를 8년 만에 깬 블라디미르 이바노프(22·불가리아)가 21일 방한한다. 대한삼보연맹은 15일 "올해 세계컵배스보전수권대회에서 표도르를 꺾은 삼보 선수 이바노프가 21일 오전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바노프는 지난달 1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2008 세계삼보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표도르를 8-5로 제압, 격투기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표도르는 이바노프에게 패해 세계삼보선수권대회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이 무산됐고 삼보 대회를 포함해 프라이드와 릭스, M-1, 보복과이트 등 세계 각국 종합격투기 대회를 통틀어 8년 만에 첫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 워드 107야드 전진 피츠버그 PO 진출

### 美 프로풋볼...볼티모어에 13-9 승리

한국계 하인스 워드(32·사진)가 활약 중인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미국프로풋볼(NFL)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피츠버그는 15일(한국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M&T 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규시즌 14주차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방문경기에서 4쿼터에서만 10점을 쏟아 붓는 뒷심을 발휘하고 13-9로 승리, 11승3패로 아메리칸콘퍼런스 북부지구 우승을 확정했다. 2년 연속 지구 타이틀을 거머쥔 피츠버그는 12승2패로 남부지구 1위를 결정지은 테네시 타이탄스에 이어 콘퍼런스에서 두 번째로 좋은 승률을 올려 6팀이 격돌하는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를 건너뛰고 2라운드부터 나서게 됐다. 와이드리시버 워드는 이날 터치다운은 없었지만 8번 패스를 받아 107야드를 전진, 팀이 역전승을 거두는 데 힘을 보탰다. 그는 3-9로 끌려가던 4쿼터 9분 26초를 남기고 쿼터백 벤 로슬러버거의 패스를 받아 제프 리드가 30야드짜리 필드골을 터뜨리는 데 디딤돌을 놓았다. 피츠버그는 6-9이던 4쿼터 종료 43초를 남기고 산토니오 홈즈가 천금 같은 터치다운을 찍고 리드가 보너스 킥까지 성공, 13-9로 역전승을 이끌었다. 피츠버그는 이날 1일 뉴잉글랜드(33-10), 8일 댈러스(20-13) 등 3경기 연속 4쿼터에만 10점, 17점, 10점씩을 넣는 뛰어난 집중력을 뽐내고 5연승을 내달렸다. 워드는 이날까지 864야드를 전진, 남은 2경기에서 136야드만 추가하면 시즌 1천 야드에 4년 만에 복귀한다. 피츠버그는 22일 테네시와 아메리칸콘퍼런스 플레이오프 톱시드를 놓고 일전을 벌인다. /연합뉴스